

#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오예프 정권의 권력 강화 방식 분석: 권위주의 권력 공유(Power-Sharing) 이론을 중심으로\*

성동기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2016년 9월 2일에 25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을 통치했던 독재자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이 사망한 후 차기 대권 후보로 당시의 샤프카트 미르지오예프(Shavkat Mirziyoyev) 총리,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simov) 재무 담당 수석 부총리,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 민족 안전국 의장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던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약자였던 미르지오예프를 지지하고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그리고 미르지오예프는 집권 이후 이들을 큰 문제 없이 제거하고 개인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볼릭(Milan Svoblik)의 권위주의 권력 공유(Power-Sharing) 이론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했다.

주제어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오예프, 이노야토프, 권력 공유, 권위주의

## I. 들어가며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2일에 사망하면서 그의 25년 독재 정치가 막을 내렸다. 그해 8월 28일에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 『페르가나(Fergana)』에서 그의 죽음을 처음으로 보도한 후 해외 주요 언론사들도 그의 사망설을 연달아서 제기했다.<sup>1</sup>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그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반복해서 발표만 할 뿐 그의 사망을 계속해서 부인했다. 그러나 9월 2일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국영 방송을 통해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

\* 본 논문은 2018년도 인하대학교 2학기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의 수준을 올려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sup>1</sup> Litvinova Daria and Davies Katie(2016), "Islam Karimov Rumored Dead, Uzbekistan Ponders Future." <https://www.themoscowtimes.com/2016/08/29/uzbekistan-on-life-support-country-motionless-as-karimov-hospitalized-a55147>(검색일: 2019. 7. 24).

다.<sup>2</sup>

그의 사망 이후 세계는 우즈베키스탄의 포스트 카리모프 시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카리모프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사망했기 때문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나왔다.<sup>3</sup> 대내외적으로 거론되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차기 대권 후보들은 2003년부터 13년 동안 총리로 재직하고 있었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2005년부터 11년 동안 재무 담당 수석 부총리로 재직하고 있었던 루스탐 아지모프(Rustam Azimov), 그리고 1995년부터 21년 동안 민족 안전국(NSS: National Security Service)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루스탐 이노야토프(Rustam Inoyatov) 세 사람이었다. 이들은 모두 카리모프 정권의 실세들이었으며 그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자들이었다. 카리모프 정권하에서 아지모프는 업무의 특성상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며, 이노야토프는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권력 기관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민족 안전국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전부터 포스트 카리모프로 평가받아 왔었다. 반면에 미르지요예프는 총리였기 때문에 권력상 서열은 높았지만 위 두 사람에 비해서 인지도와 권력 면에서 평판도가 낮았다. 그러나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가 타슈켄트(Tashkent) 파벌인 반면에 미르지요예프는 카리모프와 같은 사마르칸트(Samarkand) 파벌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로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미르지요예프에게 반전을 제공하기는 힘들었다. 그 이유는 1999년 2월 16일에 발생한 타슈켄트 폭탄 테러 때문이었다. 이 테러는 카리모프를 겨냥한 것이었는데, 주동자들이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이라고 알려지면서 카리모프는 타슈켄트 파벌과 연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이후 타슈켄트 파벌 출신들이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들보다 권력 측면에서 더 큰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가 지속적으로 미르지요예프보다 더

<sup>2</sup>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портал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2016), “Медицинское заключение о болезни и причине смерти Ислама Абдуганиевича Каримова.” <https://www.gov.uz/ru/news/view/7168>(검색일: 2019. 7. 24).

<sup>3</sup> Абдужалил Абдурасулов(2017), “Зачем узбекскому президенту либеральные реформы?”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41269455>(검색일: 2019. 7. 24).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정치적 열세에 있었던 사마르칸트 파벌 출신들은 미르지오예프가 카리모프의 직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다시 권력을 찾고자 했다. 차기 대권의 흐름은 결국 개인들의 경쟁이 아닌 타슈켄트 파벌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대결 구도 양상으로 변화되어 갔다. 따라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의 정국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3강 구도는 매우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에 차기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아지모프가 출마 포기를 선언했으며,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오예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sup>4</sup> 이노야토프의 이러한 결단은 타슈켄트 파벌인 본인 혹은 아지모프가 대통령이 되면 사마르칸트 파벌의 강한 저항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미르지오예프가 이노야토프와 아지모프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공유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5</sup> 이처럼 타슈켄트 파벌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대결과 충돌로 예상되었던 우즈베키스탄 대선은 사실상 가장 약자로 평가받았던 미르지오예프의 승리로 끝났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상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 대선 후보에서 자진사퇴하거나 경쟁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쟁자와 비록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노야토프와 아지모프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미르지오예프는 2016년 12월 4일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즉시 아지모프를 재무부 장관에서 해임시켰으며, 2017년 6월 6일 부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했다.<sup>6</sup> 그리고 2018년 1월 31일

<sup>4</sup> Chikhkladze, Tatia(2018), "Who to talk to in Uzbekistan: developments after 2016 power succession." <http://caspianet.eu/2018/11/11/who-to-talk-to-in-uzbekistan-developments-after-2016-power-succession/>(검색일: 2019. 7. 24).

<sup>5</sup> Reuters(2016), "Uzbekistan PM wins presidential vote panned by Western monito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election-idUSKBN13U1BH>(검색일: 2019. 7. 24).

<sup>6</sup> Qishloq Ovozi(2017), "Rustam Azimov, Once Seen As Potential Uzbek President, Dismissed From Government." <https://www.rferl.org/a/qishloq-ovozi-azimov-out-uzbekistan-governmant/28531755.html>(검색일: 2019. 7. 24).

이노야토프도 해임시켰다.<sup>7</sup> 그렇다면 이러한 가능성을 알면서도 왜 이들은 차기 대권을 미르지요예프에게 양보했는가?

둘째,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기존 정권에서 타슈켄트 파벌을 중심으로 경제와 군사 안보 부문의 권력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르지요예프가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었다. 이노야토프는 우즈베키스탄 최강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가진 민족 안전국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미르지요예프를 암살하거나 심지어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노야토프는 일정 부분 미르지요예프에게 저항했지만 그가 자신을 해임시키려고 했을 때 순순히 그의 결정을 따랐다. 왜 이들은 미르지요예프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저항하지 않았을까?

셋째, 미르지요예프는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가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집권 이후 이들과 권력을 공유한다는 약속을 했다. 따라서 집권 이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한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는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큰 문제 없이 제거했다. 미르지요예프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제거했을까? 분명히 이들이 저항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사용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문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sup>8</sup>

첫째,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미르지요예프 집권 이후 전개되었던 위의 의문들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기존 정권을 계승한 집권자와 그의 협력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파워 게임을 진행한다는 스볼릭(Milan Svolik)의 권위주의 권력 공유(Power-Sharing)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될 것이다.

<sup>7</sup> BBC(2018), "Uzbekistan reforms: President Mirziyoyev sacks security chief." <https://www.bbc.com/news/world-asia-42887336>(검색일: 2019. 7. 24).

<sup>8</sup> 본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국내외의 유일한 선행 연구는 미르지요예프의 개혁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권위주의 향방을 모색했던 이지은(2019)의 연구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는 미르지요예프가 어떻게 개혁을 수행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위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오예프를 지지했는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들이었던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가 약자였던 미르지오예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씨족 중심의 전통적인 지역 파벌 구도와 행태를 통해서 분석될 것이다.

셋째, 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순수히 미르지오예프의 해임 결정을 따랐는가?

미르지오예프가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제거했을 때 왜 이들이 저항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르지오예프가 이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제압했는지가 분석될 것이다.

넷째, 미르지오예프의 권력 강화 방식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분석들을 통해서 약자였던 미르지오예프가 강자였던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시킨 방식들과 그 특징들이 분석될 것이다.

## II. 본론

### 1. 이론적 배경

2016년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1946년부터 2012년까지 79명의 독재자가 집권 도중에 자연사했는데, 이후 민주화를 통해서 정권으로 교체된 사례는 겨우 4%에 불과했으며, 87%가 후계자에 의해서 독재 정권이 유지되었다고 한다(Kendall-Taylor and Frantz, 2016).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후자에 해당한다.<sup>9</sup> 따라서 미르지오예프 역시 집권 이후 전임자인 카리모프와 같이 독재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르지오예프는 기존 정권에서 본인보다 높은 인지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지모

<sup>9</sup> “When ailing dictators die in office, what happens nex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6/12/01/when-ailing-dictators-die-in-office-what-happens-next/?utm\\_term=.6a994102243e](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6/12/01/when-ailing-dictators-die-in-office-what-happens-next/?utm_term=.6a994102243e)(검색일: 2019. 7. 24).

프와 이노야토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잡았고 이들과 사전에 권력을 공유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기존의 카리모프와 같은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미르지요예프가 집권 이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행위는 다른 독재 국가들의 권력 계승자들이 추진했던 권력 공유(Power-Sharing)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권력 공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집권자와 그를 지지했던 협력자들이 전개하는 파워 게임을 의미한다(Svolik, 2012: 53-84). 집권자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협력자들로부터 지지가 필요하고, 협력자들은 집권 이후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집권자를 지지한다.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권을 차지하기까지 이들의 관계는 공고하지만 집권 이후에는 집권자와 협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집권자는 협력자들을 장악하여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며, 동시에 협력자들은 집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그를 축출하려고 준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협력자들의 한계가 나타난다. 집권자를 축출하려는 시도 자체가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협력자들은 당연히 이를 행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실행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협력자들이 집권자를 압박하거나 축출하려는 행동을 주저하는 동안에 집권자는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개인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집권자 역시 권력 공유 과정에서 협력자들보다 앞서서 권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 축출당할 수도 있다(Svolik, 2012: 85-122).

미르지요예프, 아지모프, 이노야토프는 공통적으로 카리모프의 개인 독재 체제 구축 과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권력을 얻었던 협력자들이었다. 따라서 집권자가 협력자들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권력 공유의 파워 게임을 해야만 개인 독재 체제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집권자가 된 미르지요예프는 궁극적으로 개인 독재 체제를 꿈꾸었을 것이고, 협력자가 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요예프의 그런 의도를 차단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요예프의 집권 초기부터 충분히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한

카리모프 체제처럼 집권자를 지지하면서도 자신만의 권력을 만들 수 있었거나 혹은 집권자를 압박하여 집권자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약자였던 집권자 미르지요예프는 반대로 이들을 제거하고 개인 독재 체제의 기반을 구축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그 원인은 협력자의 한계에서 찾아야 한다. 이들이 미르지요예프에게 차기 대권을 양보한 것은 일차적으로 사마르칸트 파벌의 강력한 도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자를 압박 혹은 축출하고 싶어도 정치적 생명을 걸 만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계산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자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강하게 이를 밀어붙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약자의 역설로도 설명할 수 있다. 미르지요예프는 비록 약자의 입장에서 정권을 차지했지만 최고 통치권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정국의 안정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치 엘리트들과 일반 관료들은 집권자를 지지하게 된다. 이것은 정적인 협력자들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된다. 권위주의 정권의 특성상 이러한 변화는 매우 빨리 진행된다. 따라서 집권자인 미르지요예프는 협력자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권력 공유의 파워 게임을 진행한다. 미르지요예프가 추진한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르지요예프는 2016년 12월 4일 대통령에 당선됨과 동시에 아지모프를 재무부 장관에서 해임시켰다. 이것은 약자였던 집권자가 강자였던 협력자에게 권력 공유의 파워 게임에서 먼저 공격한 것을 의미한다. 이후 집권자는 협력자의 반응을 기다렸다. 협력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집권자는 다음 단계의 공격을 준비해야 한다. 아지모프는 순순히 재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수석 부총리로 남아 있었다.

둘째, 미르지요예프는 이 사건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 20일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으로 알마토프(Zokir Almatov)를 임명했다.<sup>10</sup> 그는 1999년 2월 폭탄 테러의 중요한 주동자였으며, 2005년 안디잔 사태(Andijan Unrest)의 무력 진

<sup>10</sup> Qalampir(2016), “Зокир Алматов ҳукумат ишига қайтарилди.” <http://archive.qalampir.uz/news/zokir-almatov-xukumat-ishiga-qaytarildi-5275>(검색일: 2019. 7. 24).

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카리모프에 의해 내무부 장관직에서 해임되고 정치권을 떠났으며, 카리모프와 이노야토프의 최대 정적이자 사마르칸트 파벌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다. 다른 부처도 아닌 반부패 위원장으로 알마토프가 복귀한 것은 집권자인 미르지요예프가 협력자들에게 던진 두 번째 공격이었다. 이 상황에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자신들의 우세한 권력을 앞세워 집권자를 압박하거나 축출하는 데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협력자들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집권자는 알마토프를 내세워 민족 안전국의 공무원들을 부패 혐의로 대거 해임하면서 이노야토프를 압박했다.

## 2. 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요예프를 지지했는가?

앞에서 차기 대권 후보들 중에서 미르지요예프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카리모프는 본인이 사마르칸트 파벌이었지만 1999년 2월의 폭탄 테러 이후 같은 파벌인 미르지요예프보다는 그와 협력하고 있는 타슈켄트 파벌의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더 중용했다. 아지모프는 타슈켄트 출신으로 기계 공학을 전공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독립 이후에 중앙 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2005년부터 재무 담당 수석 부총리로 재직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고는 아지모프가 관리한다고 할 만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았으며, 해외에서도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지모프는 국제회의에서도 카리모프 옆에 항상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우즈베키스탄의 2인자로 이미 거론되었던 인물이었다.<sup>11</sup> 이노야토프는 국경 수비대와 세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 측면에서는 이미 1인자로 평가받고 있었으나 당시에 72세라는 나이와 민족 안전국 의장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외부와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아지모프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노야토프는 실질적으로 1999년 2월 폭탄 테러

<sup>11</sup> Roth, Andrew(2016), "uncertainly over President Islam Karimov's condition roils Uzbekistan."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succession-looms-in-uzbekistan-amid-uncertainty-over-leaders-condition/2016/08/30/974d7e86-6e24-11e6-993f-73c693a89820\\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82d9fdf0baea](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succession-looms-in-uzbekistan-amid-uncertainty-over-leaders-condition/2016/08/30/974d7e86-6e24-11e6-993f-73c693a89820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82d9fdf0baea)(검색일: 2019. 7. 24).

이후 카리모프를 보호하고 지지한 타슈켄트 파벌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권은 그가 정해 준다는 소문까지 들었을 만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sup>12</sup> 따라서 이노야토프는 같은 파벌인 아지모프를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했다. 그러나 그는 아지모프가 아닌 미르지오예프를 선택했다. 왜 그는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다음의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미르지오예프는 자신의 정치 경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노야토프와 두 차례 만났다. 첫 만남은 미르지오예프가 1992년 타슈켄트의 미르조 울루그벡(Mirzo Ulugbek)구(區)의 호킴(Xokim)으로 임명되고 활동할 때였다. 이때 미르지오예프의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과 행정 능력이 이노야토프의 눈에 띄었다. 그 다음으로 만났던 것은 이노야토프가 카리모프에게 당시에 사마르칸트 주지사였던 미르지오예프를 총리로 추천했을 때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오예프를 카리모프의 핵심 그룹에 넣어서 그의 통치에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계산으로 미르지오예프를 이용했다.<sup>13</sup> 결과적으로 이노야토프가 없었다면 미르지오예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보면,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오예프를 한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족 안전국의 부하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 미르지오예프 입장에서 이노야토프는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만들어 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집권 이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노야토프가 미르지오예프를 지지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고령의 최고 실세였던 이노야토프는 정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은혜를 두 번이나 입었던 미르지오예프를 대통령에 앉히고 상황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례는 카리모프 정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카리모프는 집권 이후 사마르칸트 출신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

<sup>12</sup> Neil MacFarquhar(2016), "With Uzbekistan's Ruler Gravely Ill, Questions Arise on Succession." [https://www.nytimes.com/2016/08/30/world/asia/uzbekistan-president-islam-karimov.html?\\_r=0](https://www.nytimes.com/2016/08/30/world/asia/uzbekistan-president-islam-karimov.html?_r=0)(검색일: 2019. 7. 24).

<sup>13</sup> Petr Bologov(2016), "Who Will Be Uzbekistan's Next President?" <https://www.themoscowtimes.com/2016/09/07/who-will-be-uzbekistans-next-president-a55245>(검색일: 2019. 7. 24).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9년 2월 타슈켄트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치권의 판도가 바뀌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이 사건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사마르칸트 파벌에서 카리모프를 제거하기 위한 테러였다고 밝혀졌다(ICG, 2001). 카리모프는 집권 이후 사마르칸트 파벌에 국가의 많은 이권을 배분했다. 그러나 이들의 부정부패로 국가 경제가 타격을 받아 이권을 회수하거나 조정했다. 카리모프의 이러한 대응에 반발하여 사마르칸트 파벌의 권력자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한 테러를 자행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마르칸트 파벌의 실세이자 카리모프를 정치적으로 후원(patronage)했던 주라베코프(Ismail Jurabekov)가 있었다.<sup>14</sup> 그는 실제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카리모프를 권좌에 앉히고 상왕 정치를 했었다.<sup>15</sup>

둘째,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가 미르지요예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이웃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6</sup> 2006년 중앙아시아 최고의 독재자로 평가받았던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가 심장마비로 급서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정국이 불안해졌다. 그러나 2001년에 보건·과학·교육 담당 부총리로 임명된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가 신속하게 권력을 승계했다.<sup>17</sup> 미르지요예프는 베르디무하메도프와 상당히 유사

<sup>14</sup> Qishloq Ovozi(2015), "Orphaned Dictator: The Making Of Uzbekistan's Islam Karimov." <https://www.rferl.org/a/the-making-of-islam-karimov-uzbekistan/26917396.html>(검색일: 2019. 7. 24), Владимира Прохвятилова(2016), "Узбекистан: тайная война кланов." <https://vvprohrvatilov.livejournal.com/305257.html>(검색일: 2019. 7. 24).

<sup>15</sup> 카리모프는 이 사건 이후 당시에 농업 담당 수석 부총리로 재직했던 주라베코프를 해임하고, 그를 대통령 수자원·농업 담당 비서로 좌천시켰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4년 3월 카리모프는 그를 완전히 해임시키고 정치권에서 몰려나게 했다.

<sup>16</sup> Stratfor(2016), "In Uzbekistan, Hints of a Successor Emerge."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uzbekistan-hints-successor-emerge>(검색일: 2019. 7. 24).

<sup>17</sup> 베르디무하메도프의 권력 승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투르크메니스탄 법에 의하면, 의회 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맡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위원회(State Security Council)에서는 의회 의장이었던 아타예프(Overzgeldy Atayev)가 아닌 베르디무하메도프를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검찰 총장은 이 결정 이후 아타예프를 체포하고 임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둘째,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의 경호 실장이었던 레제포프(Akmurat Rejepov)와 협력하여 권력 승계에 착수했다. 레제포프는 2002년 니야조프 암살 사건을 잘 처리한 대표적인 측근이었다.

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니야조프와 같은 아할(Ahal)주(州)의 테케(Teke) 부족이며, 후원 네트워크에 의해서 관리를 받아 왔고, 니야조프 통치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장관으로 기록되었다.<sup>18</sup> 그 이유는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니야조프의 교육, 의료 부문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었다(ICG, 2007).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르크메니스탄에는 부족들이 사전 합의를 해서 권력 승계자를 선출하는 전통적 방식이 있었다는 점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요한 정치 문제는 역사적으로 자국을 구성하는 5개 주요 부족들의 합의로 해결되어 왔다(Kuru, 2002). 따라서 니야조프 사후 그의 직속 부족에 해당하는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사실상 이러한 합의에 의해서 권력을 승계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는 부족 중심이 아닌 씨족 중심의 지역 파벌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따라서 전임 통치자의 직계 파벌이 권력을 승계하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권력 승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지역 파벌들의 수장들이 사전에 모여서 거래와 합의를 한다. 미르지오예프가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에게 권력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러한 사전 거래와 합의의 산물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거래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2016년 9월 3일 카리모프의 고향인 사마르칸트에서 거행되었던 장례식에서 미르지오예프는 장례 조직 위원장이 되었다. 이때 해외 언론에서는 미르지오예프를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했는데, 그 이유는 고인을 직접 묻는 사람이 차기 지도자라는 소비에트 체제에서부터 내려온 속설 때문이었다.<sup>19</sup> 이러한 사실

셋째, 인민 위원회에서는 베르디무하메도프가 49세인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 후보자 조건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하여 기존의 50세를 40세로 낮추었다. 넷째, 강력한 차기 대통령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니야조프의 아들 무라트(Murat)는 15년 국내 체류 조건과 투르크멘어 구사력을 갖추지 못해서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었으며, 딸인 이리나(Irina) 역시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섯째, 국방 장관이었던 마메젤디예프(Agageldi Mamedgeldiyev) 역시 니야조프 사망 후 구금되어 버렸다. 베르디무하메도프는 레제포프와 협력하여 자신에게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했다. 2007년 2월 11일에 실시되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베르디무하메도프는 투표에 참여한 98.65%의 유권자 중 89.2%의 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다.

<sup>18</sup> 미르지오예프는 카리모프의 직계 파벌이었으며, 카리모프 정권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총리를 역임했다.

<sup>19</sup> Shairbek Dzhuhaev(2017), "A smooth succession: Uzbekistan's second president." <http://www.kci.go.kr>

을 미르지요예프, 아지모프, 이노야토프가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2016년 8월 28일 카리모프의 사망 보도가 처음 나간 이후 9월 2일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대략 일주일 동안 사마르칸트 파벌과 타슈켄트 파벌의 사전 거래와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어떤 언론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차기 대권의 향방을 미리 보여 주는 장례 조직 위원장에 미르지요예프가 임명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의하면, 전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실질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이후 3개월 동안 상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차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sup>20</sup> 그러나 울다셰프(Nigmatilla Yuldashev) 상원 의장은 2016년 9월 8일 상하원 합의로 미르지요예프에게 임시 대통령직을 이양한다고 발표했다.<sup>21</sup> 이 사건 역시 양대 파벌의 사전 거래와 합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가 미르지요예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적인 씨족 중심의 지역 파벌 정치가 가지는 구도와 행태 때문이었다.

### 3. 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순순히 미르지요예프의 해임 결정을 따랐는가?

2017년 6월 6일 미르지요예프는 다음과 같은 실책 때문에 아지모프를 수석 부총리직에서 해임시켰다.<sup>22</sup> 첫째, 2017년 1월 미르지요예프는 급여, 연금 및 기

caspiant.eu/2017/05/14/smooth-succession-uzbekistans-second-president/(검색일: 2019. 7. 24).

<sup>20</sup> “우즈베키스탄 헌법 9조 96항.”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Uzbekistan\\_2011.pdf?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Uzbekistan_2011.pdf?lang=en)(검색일: 2019. 7. 24).

<sup>21</sup> RFE/RL(2016), “Uzbekistan Names Longtime PM Mirziyayev Interim President.” <https://www.rferl.org/a/uzbekistan-interim-president-karimov/27974858.html>(검색일: 2019. 7. 24).

<sup>22</sup> Qishloq Ovozi(2017), “Rustam Azimov, Once Seen As Potential Uzbek President, Dismissed From Government.” <https://www.rferl.org/a/qishloq-ovozi-azimov-out-uzbekistan-government/28531755.html>(검색일: 2019. 7. 24).

타 지불금이 은행으로 입금되고 이후 국민들이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해서 돈을 찾는 방식의 은행 카드 결제 시스템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아지모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둘째, 미르지요예프는 언론을 동원하여 아지모프를 비난하는 급여 생활자들과 연금 생활자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sup>23</sup> 셋째, 미르지요예프는 2017년 5월 29일 외국 투자 관련 회의에서 터키로부터 2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지 못한 책임을 아지모프가 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아지모프는 회의가 종료된 직후 부총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는 2018년 1월 31일 이노야토프를 해임시켰다.<sup>24</sup> 그는 이날 민족 안전국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외교관, 기자들을 모아 놓고 해당 기관에서 그동안 자행했던 협박, 고문, 불법 도청, 불법 수사를 신랄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sup>25</sup>

미르지요예프는 정적이었던 아지모프를 집권 이후 6개월여 만에, 이노야토프를 2년여 만에 완전히 해고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자신의 측근들을 앉혔다.

위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미르지요예프의 개혁 정책에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은 해고되었다.

미르지요예프는 2016년 12월 4일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불과 65일이 지난 2017년 2월 7일 자신의 개혁 내용을 담은 ‘우즈베키스탄 2017~2021년 5개년 개발 전략(Стратегия действий по пяти приоритет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в 2017-2021 годах)’을 발표했다. 그는 ‘발전 전략 센터(Центр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를 만들어 자신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켰다.<sup>26</sup> 미르지요예프는 10대 개혁을 제시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sup>23</sup>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르지요예프가 아지모프를 깎아내리려는 전략이라고 분석된다.

<sup>24</sup> BBC(2018), “Uzbekistan reforms: President Mirziyoyev sacks security chief.” <https://www.bbc.com/news/world-asia-42887336>(검색일: 2019. 7. 24).

<sup>25</sup> Nizom Khodjayev(2018), “Uzbek President Mirziyoyev sacks veteran security chief Inoyatov.” <https://www.intellinews.com/uzbek-president-mirziyoyev-sacks-veteran-security-chief-inoyatov-136053/>(검색일: 2019. 7. 24).

<sup>26</sup> Центр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http://strategy.gov.uz/en>(검색일: 2019. 7. 24).

그의 10대 개혁 과제와 이에 따른 핵심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sup>27</sup>

- ① 통화 자유화(Валютная либерализация, Currency liberalization)
  - 환율 단일화 • 환전 자유화
- ② 세금 개혁(Налоговая реформа, Tax reform)
  - 세무 관련 기관 개혁 • 세법 개혁
- ③ 경제 개혁(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Economic reforms)
  - 사기업의 양성 •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 철폐
- ④ 교육 개혁(Реформа образования, Education reform)
  - 11학년제 복귀 • 교육 기관 종사자 급여 인상
- ⑤ 부패 퇴치(Борьба с коррупцией, Fighting corruption)
  - 반부패법 공포 • 부패 방지 위원회 설치
- ⑥ 군대 개혁(реформа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military reform)
  - 군사 교육 시스템 개선
- ⑦ 내무부 개혁(реформа МВД, MIA reform)
  - 2023년까지 '안전한 도시' 프로젝트 완료
- ⑧ 민족 안전국 개혁(реформа ЧНБ, NSS reform)
  - 민족 안전국의 대폭적인 개혁
- ⑨ 인권(права человека, Human Right)
  - 사면령 • 기업가 권리 보호
- ⑩ 행정 개혁(административная реформа, administrative reform)
  - 행정 시스템의 현대화

미르지요예프의 이러한 개혁들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들이었다. 아지모프는 경제 개혁, 이노야토프는 인권 개혁에 실패한 주범이 되었다. 아지모프는 지난 정권에서 경제 부문을 책임졌던 실세였다. 그러나 그가 구축했던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경제 시스템은 모두 미르지요예프 집권 이후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통화 자유화, 세금 개혁, 경제 개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르

<sup>27</sup> Spot(2018), “Опубликован список главных реформ президента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https://www.spot.uz/ru/2018/07/24/reforms/>(검색일: 2019. 7. 24).

지오예프는 아지모프를 개혁에 반하는 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언론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이를 알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지모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었다. 이노야토프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르지오예프의 10대 개혁 과제들 중에서 부패 퇴치, 민족 안전국 개혁, 인권은 사실상 이노야토프를 겨냥한 것들이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문제를 세계적인 인권 단체에서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노야토프 역시 미르지오예프의 해고 통보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미르지오예프가 아지모프를 재무부 장관에서 해고한 것은 집권자가 협력자에게 행한 선공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아지모프는 힘없이 당하고 말았지만 이노야토프는 해고되기 전까지 일정 수준으로 집권자에게 반격을 가했다. 다음의 사건들이 대표적이다.

첫째, 환율 단일화이다.

미르지오예프는 2017년 9월 5일에 환율 단일화를 발표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일찍 발표하려고 한 것인데 이노야토프가 반대해서 늦어졌다.<sup>28</sup> 이노야토프는 환율 단일화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사실상 민족 안전국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중 환율을 조작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국가 경제를 자신의 의향대로 움직여 왔다. 따라서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오예프의 환율 단일화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입국 비자 면제이다.<sup>29</sup>

미르지오예프는 2017년 1월 9일 자국으로의 여행객 유치를 늘리고 외국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요 27개국 국민들에게 입국 비자를 면제해 주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령을 4년 뒤로 연기해서 실행한다고 재발표했다. 그 이유는 이노야토프가 이러한 대통령령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반대했기 때문이었다.<sup>30</sup> 미르지오예프는

<sup>28</sup> Абдужалил Абдурасулов(2017), “Зачем узбекскому президенту либеральные реформы?”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41269455>(검색일: 2019. 7. 24).

<sup>29</sup> Stratfor(2017), “A Resistance to Reform in Uzbekistan.”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resistance-reform-uzbekistan>(검색일: 2019. 7. 24).

<sup>30</sup> Petr Bologov(2017), “The Power Struggle Dividing Uzbekistan’s Leadership.” <https://car>

2018년 2월 10일부터 한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일본 등 7개국 시민에게만 30일 동안 무비자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sup>31</sup>

셋째, 타지키스탄과 항공 노선 재개이다.

미르지요예프는 1992년 타지키스탄의 시민 전쟁 때문에 중단되었던 양국의 항공 노선을 2017년 4월부터 25년 만에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sup>32</sup> 그러나 타지키스탄 국적의 항공기인 소몬 항공(Somon Air)이 타슈켄트로 역사적인 출발을 앞두고 갑자기 비행을 취소했다. 그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이노야토프가 타지키스탄과의 비행 재개를 반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 이노야토프는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 타지키스탄으로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타슈켄트로 입국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미르지요예프의 결정에 반대했다.<sup>33</sup>

집권자인 미르지요예프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개혁들의 일부는 협력자인 이노야토프의 기득권과 기존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집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협력자의 반응을 기다렸을 것이다. 협력자인 이노야토프는 환율 단일화에 반대했으나 결국 집권자인 미르지요예프의 방향대로 따라갔다. 그러나 이노야토프는 비자 문제와 타지키스탄과의 항공 노선 재개에 대해서는 미르지요예프에게 반격을 가했다. 미르지요예프는 이노야토프의 반응이 예전보다 강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결국 미르지요예프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는 인권 문제로 이노야토프를 반격하면서 그를 결국 해임시킬 수 있었다.

negie.ru/commentary/68361(검색일: 2019. 7. 24).

<sup>31</sup> Die Botschaft der Republik Usbekistan. <https://www.uzbekistan.de/en/konsularabteilung/visa/important-message>(검색일: 2019. 7. 24).

<sup>32</sup> Eurasiatimes(2017), "Uzbek-Tajik flights resume." <https://www.eurasiatimes.org/en/14/04/2017/uzbek-tajik-flights-resume/>(검색일: 2019. 7. 24).

<sup>33</sup> Петрв Боголов(2017), "Останется только один. Почему возник раскол в руководстве Узбекистана." <https://carnegie.ru/commentary/68260>(검색일: 2019. 7. 24).

#### 4. 미르지오예프의 권력 강화 방식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미르지오예프가 약자의 입장에서 권위주의 독재 체제의 권력 승계자가 되었지만 사실상 2년여 만에 집권자는 권력 공유의 파워 게임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협력자들을 제거하면서 개인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미르지오예프가 이와 같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킨 방식과 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을 통한 국민의 지지 확보이다.

미르지오예프가 발표한 10대 개혁들 중에서 통화 자유화, 세금 개혁, 경제 개혁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이다. 미르지오예프는 기존 정권에서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경제 분야의 개혁들을 집권 이후 신속히 추진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자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국제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미르지오예프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부패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퇴치가 시작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다수 해고되고 고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미르지오예프는 2018년 12월 7일 개최된 헌법의 날 기념식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1만 1천 명의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해고되었다고 밝혔다.<sup>34</sup> 인권 역시 우즈베키스탄 국민에게는 민감한 문제였는데, 미르지오예프의 인권 개혁은 기존 정권에서 부당하게 구속된 자들의 석방, 강제 노동 폐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실제로 구금되어 있던 인권 운동가와 정치범들을 대거 석방시켰다. 이와 같은 개혁들이 추진되면서 국민들은 미르지오예프를 더욱 더 지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미르지오예프를 반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둘째, 사마르칸트 파벌을 이용한 권력 강화이다.

1999년 2월 타슈켄트 폭탄 테러 이후 사실상 기득권을 상실한 사마르칸트 파

<sup>34</sup> Sputnik(2018), “Мирзиёев расказал, сколько чиновников уличили в коррупции в 2018 году.” <https://uz.sputniknews.ru/politics/20181208/10197101.html>(검색일: 2019. 7. 24).

별은 미르지요예프가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실제로 미르지요예프는 사마르칸트 출신이 아니다. 미르지요예프는 1957년 7월 24일 우즈베키스탄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작(Jizzakh)주(州)의 자민(Zaamin)이라는 곳에서 출생했다. 사마르칸트 파벌은 지작 출신의 라시도프(Sharaf Rashidov)가 흐루쇼프에 의해서 발탁되고 1959년부터 1983년 동안 우즈베크 공화국의 당비서를 역임하면서 새로운 지역 파벌로 성장할 수 있었다(성동기, 2004). 기존에 실세였던 페르가나(Fergana) 파벌과 타슈켄트 파벌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작은 지역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사마르칸트와 연합했으며, 나중에 사마르칸트 파벌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사마르칸트 파벌의 출발은 지작에서 비롯되었다. 미르지요예프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카리모프의 고향인 사마르칸트 주지사를 역임했다. 당시에 타슈켄트 파벌에서 권력을 장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 파벌의 중심인 사마르칸트에 이 지역 출신을 주지사로 임명하기 힘들었다. 동시에 사마르칸트 파벌 역시 타 지역 출신이 주지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작 출신의 미르지요예프는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미르지요예프는 총리가 되면서 주라베코프와 알마토프가 카리모프와 이노야토프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퇴출되어 사실상 공석이 된 사마르칸트 파벌의 수장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르지요예프는 자신을 지지하고 권력을 다시 찾으려는 사마르칸트 파벌과 주민들을 이용하여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위협했다. 실제로 2017년 1월 3일 그는 사마르칸트 파벌의 권력 중심에 있었던 내무부의 수장을 지작 출신의 아지조프(Abdusalom Azizov)에게 맡겼다.<sup>35</sup> 2005년에 발생한 안디잔 사태 이후 2만 명의 내무부 군대의 소속이 민족 안전국으로 변경되었다.<sup>36</sup> 미르지요예프는 2017년 5월 2일 다시 이 군대를 내무부 소속으로 전환시켰다. 이후 2018년 2월 27일에 전직 내무부 장관이었던 알마토프를

<sup>35</sup> EurasiaNet(2017), "Uzbekistan: Possible Changes at Security Agencies Offer Litmus Test for Reform." <https://www.ecoi.net/en/document/1393528.html>(검색일: 2019. 7. 24).

<sup>36</sup> Józef Lang(2017), "Uzbekistan: the new president's consolidation of power." <https://www.osw.waw.pl/en/publikacje/analyses/2017-05-10/uzbekistan-new-presidents-consolidation-power>(검색일: 2019. 7. 24).

내무부 특별 자문으로 임명했다.<sup>37</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내무부는 1999년 2월 타슈켄트 폭탄 테러 이전에 사마르칸트 파벌에서 장악했던 내무부로 부활했다. 현재 내무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기관이다.

셋째, 국제 사회를 이용한 권력 강화이다.

미르지오예프는 카리모프 정권하에서 13년 동안 총리로 있었다. 이것은 미르지오예프가 기존 정권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미르지오예프가 집권 이후 10대 개혁을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힘들었다. 굳이 개혁을 추진하지 않아도 미르지오예프는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한 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이것이 정권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개혁이 환율 단일화였다. 카리모프 정권하에서 환율 단일화 없이도 연 8%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실제로 미르지오예프가 처음으로 환율 단일화를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 카리모프 정권하에서도 200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환율 단일화를 위한 준비를 했었다.<sup>38</sup> 이 당시에는 시장환율을 공식환율에 맞추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미르지오예프는 2017년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공식적으로 환율 단일화에 관한 개혁을 논의했다.<sup>39</sup> 그리고 그는 마침내 2017년 9월 5일 환율 단일화 법령을 공표했다.<sup>40</sup>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1\$=4,000숨이었던 공식 환율을 1\$=8,000숨인 시장 환율에 맞추어서 단일화를 단행했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부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sup>41</sup> 미르지오예프는 환율 단일화를 통해 국

<sup>37</sup> centrasia.org. <https://centrasia.org/person2.php?st=1013880351>(검색일: 2019. 7. 24).

<sup>38</sup> Antoine Blua(2002), "Uzbekistan: Tashkent Moves Toward Unifying Currency Rates." <https://www.rferl.org/a/1099530.html>(검색일: 2019. 7. 24).

<sup>39</sup> МВФ(2017), "Заявление по завершении рабочего визита миссии МВФ в Узбекистан." <https://www.imf.org/ru/News/Articles/2017/07/24/pr17296-statement-at-the-conclusion-of-an-imf-staff-visit-to-uzbekistan>(검색일: 2019. 7. 24).

<sup>40</sup>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https://mfa.uz/ru/press/smi/17737/>(검색일: 2019. 7. 24).

<sup>41</sup>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에 맞추어서 환율 단일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기업 가치가 2배로 폭락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 1만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기업은 환율 단일화 조치 이후 5,000달러로 가치가 하락되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내 모든 기업들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하면 기존의 대금보다 2배

제 사회의 기준에 맞는 자본주의 시장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환율 단일화 이후 1년 반도 되지 않아 그 성과가 나타났다. 1991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12월 21일에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피치(Fitch),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로부터 국가 신용 등급이 안정적(stable)이라는 평가와 함께 각각 BB-, BB-, B1 등급을 받았다.<sup>42</sup> 그리고 2019년 2월 13일에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사상 최초로 유로 본드를 발행했는데, 쿠폰 금리 4.75%의 5년 만기 5억 달러, 쿠폰 금리 5.3575%의 10년 만기 채권 5억 달러로 총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sup>43</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르지요예프는 국제 사회의 주요 인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미르지요예프는 인권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다. 국제 인권 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30명 이상의 유력 정치인,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받은 1만 7,000명의 사람들을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sup>44</sup> 우즈베키스탄에서 면화(棉花)는 중요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매년 가을이면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공무원 등 수백만 명이 수

를 더 지불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0달러의 물자를 수입하면, 기존에는 공식 환율에 맞추어 4,000숨(sum)으로 1달러를 만들어서 지불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8,000숨으로 지불해야 한다. 셋째, 반대로 수출을 하면, 기존보다 두 배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입 부분이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많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외환 보유고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넷째, 수입 대금의 지불이 2배로 증가하면서 국내 물가가 사실상 2배로 폭등했으며, 기존에 공식 환율에 맞추어서 가격을 통제했던 생필품들의 가격도 2배로 올랐다. 다섯째, 우즈베키스탄의 대부분 기업들에 종사하는 급여 생활자들은 기존에 공식 환율에 맞추어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환율 단일화 조치 이후 그들의 급여 수준은 2배로 폭락했다. 여섯째,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는 환율 단일화 조치 직전인 2017년 8월 22일에 5만숨 화폐를, 2019년 2월 25일에 10만숨 화폐를 발행했다. 이전에 가장 큰 화폐 단위는 1만숨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도의 인플레이션이 5.7%였는데, 2017년에는 14.4%로 급속히 올라갔으며, 2018년에도 14.3%에 달했다. <https://tradingeconomics.com/uzbekistan/inflation-cpi?continent=g20>(검색일: 2019. 7. 24).

<sup>42</sup>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uzbekistan/rating>(검색일: 2019. 7. 24).

<sup>43</sup>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037&searchNationCd=101095>(검색일: 2019. 7. 24).

<sup>44</sup> Agnieszka Pikulicka-Wilczewska(2018), "On the reform path: Uzbekistan opens up after years of isolation."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reform-path-uzbekistan-opens-years-isolation-181014092246543.html>(검색일: 2019. 7. 24).

확에 강제 동원되었다. 국제 사회에서는 학생들을 동원한다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비난했다. 미르지오예프는 2017년 9월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면화 수확기의 강제 노동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sup>45</sup> 그런데 미르지오예프는 과거 지작 주지사 시절에 이곳의 면화 수확을 책임지고 수십만 명을 강제 동원하고 감독했던 장본인이었다.<sup>46</sup>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르지오예프는 유엔 총회에서 국제 사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약속을 했다. 이와 같이 미르지오예프는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개혁을 추진했다. 이것은 국내에서 미르지오예프가 이노야토프를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 III.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독재자 이슬람 카리모프가 사망한 후 누가 권력을 계승할 것인지의 여부로 세계가 주목했다. 카리모프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 차기 대통령이 될 후보로 미르지오예프 총리, 아지모프 재무 담당 수석 부총리, 그리고 이노야토프 민중 안전국 의장이 거론되었다. 아지모프는 1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부문을 총괄하는 실세였으며, 특히 국제 무대에서 카리모프와 동석을 자주 하여 차기 주자로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노야토프는 21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의 정보력과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카리모프 다음의 권력자라고 알려져 있었다. 미르지오예프는 13년 동안 총리직에 있었지만 인지도와 권력에서 위 두 사람보다 뒤쳐져 있었다. 단지 카리모프와 같은 사마르칸트 파벌이라는 것이 유

<sup>45</sup> Алишер Ильхамов(2018),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тупик. О том, как реформировать хлопковый сектор Узбекистана.” <http://ced.uz/publitsistika/kommunisticheskij-tupik-o-tom-kak-reformirovat-hlopkovyj-sektor-uzbekistana/>(검색일: 2019. 7. 24).

<sup>46</sup> Tim Geschwindt(2018), “Cutting Out the Kingmaker: Mirziyoyev at a Crossroads.” <https://thediplomat.com/2018/03/cutting-out-the-kingmaker-mirziyoyev-at-a-crossroads/>(검색일: 2019. 7. 24).

일한 강점이었다. 그러나 1999년 2월 자신을 겨냥한 폭탄 테러의 주동자들이 사마르칸트 파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카리모프는 타슈켄트 파벌과 연합하여 정권을 유지했으며, 이후 타슈켄트 파벌 출신의 인물들을 더 중용했다. 결과적으로 미르지요예프는 3인의 경쟁 구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있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르지요예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아지모프가 출마를 포기했으며, 이노야토프는 미르지요예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sup>47</sup> 이노야토프의 이러한 결단은 타슈켄트 파벌인 본인 혹은 아지모프가 대통령이 되면 사마르칸트 파벌의 강한 저항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미르지요예프가 이노야토프와 아지모프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공유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sup>48</sup> 이처럼 타슈켄트 파벌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대결과 충돌로 예상되었던 우즈베키스탄 대선은 사실상 가장 약자로 평가받았던 미르지요예프의 승리로 끝났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차기 정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 대선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거나 경쟁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쟁자와 비록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르지요예프는 집권 이후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제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첫째,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는 이러한 가능성을 알면서도 왜 차기 대권을 미르지요예프에게 양보했는가? 둘째, 이들은 미르지요예프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거를 당하는 이전까지 그리고 그 순간에도 왜 별 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는가? 셋째, 약자였던 미르지요예프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제거할 수 있었는가?

본 연구는 스펀리의 권위주의 권력 공유 이론을 통해서 위와 같은 의문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집권자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협력자들로부터 지지가 필

<sup>47</sup> Tatia Chikhladze(2018), "Who to talk to in Uzbekistan: developments after 2016 power succession." <http://caspiantet.eu/2018/11/11/who-to-talk-to-in-uzbekistan-developments-after-2016-power-succession/>(검색일: 2019. 7. 24).

<sup>48</sup> Reuters(2016), "Uzbekistan PM wins presidential vote panned by Western monito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election-idUSKBN13U1BH>(검색일: 2019. 7. 24).

요하며, 협력자들은 집권 이후 그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한다. 상호 간의 이해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권을 차지하기까지 이들의 관계는 공고하지만 집권 이후에는 집권자와 협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 얻고자 충돌하게 된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집권자는 협력자들을 장악하여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시도 하며, 동시에 협력자들은 집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그를 축출하려고 준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협력자들의 한계가 나타난다. 집권자를 축출하려는 시도 자체가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이를 실행하는데 주저한다. 이와 같이 협력자들이 행동을 망설이는 동안에 집권자는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개인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집권자와 협력자의 권력 공유가 집권자의 개인 독재로 종결되면 집권자는 자국을 개인 독재 국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집권자 역시 권력 공유 과정에서 협력자들보다 앞서서 권력을 강화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축출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르지오예프는 우즈베키스탄의 씨족에 기반한 지역 파벌의 전통과 구도를 활용하여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가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집권 이후에는 집권자가 가질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여 먼저 협력자들에게 권력 공유의 파워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강자였던 협력자들은 약자였던 집권자의 선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협력자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의 축은 점차적으로 집권자에게 넘어갔다. 미르지오예프는 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아지모프와 이노야토프를 기존 정권의 적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순순히 권력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리고 사마르칸트 파벌과 국제 사회를 이용하는 방식도 활용하여 협력자들을 압박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프란츠(Erica Frantz)는 독재자가 사망한 이후 누가 정권을 잡든지 처음 3년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주장했다.<sup>49</sup> 이것은 집권자와 협력자가 전개하는 권력 공유의 파워 게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승자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

<sup>49</sup> 자유아시아방송(2016), “독재자 사망 후 민주화 정권 교체 어려워.”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12162016144331.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12162016144331.html)(검색일: 2019. 7. 24).

다. 미르지요예프는 집권 이후 2년여 만에 정적들이자 협력자들을 제거했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가 집권한 후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개혁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아직 확실하게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협하던 협력자들을 제거한 것만으로 미르지요예프가 개인 독재 체제를 완전히 구축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미르지요예프가 개인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투고일: 2019년 6월 13일 | 심사일: 2019년 7월 7일 |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성동기. 2004. “우즈베키스탄 씨족(clan)의 순환적 발전 행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6호, 349-370.
- 이지은. 2019.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 그리고 권위주의 향방.” 『한국중동학회논총』 40권 1호, 1-24.
- 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2001. “Uzbekistan at Ten: Repression and Instability.” *ICG Asia Report* 21, 1-46. (<https://www.crisisgroup.org/file/2208/download/%3Ftoken%3D79vafjX4+%&cd=1&hl=ko&ct=clnk&gl=kr>(검색일: 2019. 7. 24)).
- Kendall-Taylor, Andrea, and Erica Frantz. 2016. “When Dictators Die.” *Journal of Democracy* 27(4), 159-171.
- Kuru, Ahmet. 2002. “Between the state and cultural zones: Nation building in Turkmenistan.” *Central Asian Survey* 21(1), 71-90.
- Svolik, Milan.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자유아시아방송. 2016. “독재자 사망 후 민주화 정권 교체 어려워.”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12162016144331.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adio-world/radioworld-12162016144331.html) (검색일: 2019. 7. 24).
- BBC. 2018. “Uzbekistan reforms: President Mirziyoyev sacks security chief.” <https://www.bbc.com/news/world-asia-42887336>(검색일: 2019. 7. 24).
- Blua, Antoine. 2002. “Uzbekistan: Tashkent Moves Toward Unifying Currency

- Rates.” <https://www.rferl.org/a/1099530.html>(검색일: 2019. 7. 24).
- Bologov, Petr. 2016. “Who Will Be Uzbekistan's Next President?” <https://www.themoscowtimes.com/2016/09/07/who-will-be-uzbekistans-next-president-a55245>(검색일: 2019. 7. 24).
- Bologov, Petr. 2017. “The Power Struggle Dividing Uzbekistan’s Leadership.” <https://carnegie.ru/commentary/68361>(검색일: 2019. 7. 24).
- centrasia.org. <https://centrasia.org/person2.php?&st=1013880351>(검색일: 2019. 7. 24).
- Chikhladze, Tatia. 2018. “Who to talk to in Uzbekistan: developments after 2016 power succession.” <http://caspianet.eu/2018/11/11/who-to-talk-to-in-uzbekistan-developments-after-2016-power-succession/>(검색일: 2019. 7. 24).
- constituteproject.org. “우즈베키스탄 헌법 9조 96항.” [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Uzbekistan\\_2011.pdf?lang=en](https://www.constituteproject.org/constitution/Uzbekistan_2011.pdf?lang=en)(검색일: 2019. 7. 24).
- Die Botschaft der Republik Usbekistan. <https://www.uzbekistan.de/en/konsularabteilung/visa/important-message>(검색일: 2019. 7. 24).
- Dzhuraev, Shairbek. 2017. “A smooth succession: Uzbekistan’s second president” <http://caspianet.eu/2017/05/14/smooth-succession-uzbekistans-second-president/>(검색일: 2019. 7. 24).
- EurasiaNet. 2017. “Uzbekistan: Possible Changes at Security Agencies Offer Litmus Test for Reform.” <https://www.ecoi.net/en/document/1393528.html>(검색일: 2019. 7. 24).
- Eurasiatimes. 2017. “Uzbek-Tajik flights resume.” <https://www.eurasiatimes.org/en/14/04/2017/uzbek-tajik-flights-resume/>(검색일: 2019. 7. 24).
- Geschwindt, Tim. 2018. “Cutting Out the Kingmaker: Mirziyoyev at a Crossroads.” <https://thediplomat.com/2018/03/cutting-out-the-kingmaker-mirziyoyev-at-a-crossroads/>(검색일: 2019. 7. 24).
- Khodjajev, Nizom. 2018. “Uzbek President Mirziyoyev sacks veteran security chief Inoyatov.” <https://www.intellinews.com/uzbek-president-mirziyoyev-sacks-veteran-security-chief-inoyatov-136053/>(검색일: 2019. 7. 24).
- KOTRA.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037&searchNationCd=101095>(검색일: 2019. 7. 24).
- Lang, Józef. 2017. “Uzbekistan: the new president’s consolidation of power.” <https://www.osw.waw.pl/en/publikacje/analyses/2017-05-10/uzbekistan-new->

- presidents-consolidation-power(검색일: 2019. 7. 24).
- Litvinova, Daria and Davies Katie. 2016. "Islam Karimov Rumored Dead, Uzbekistan Ponders Future." <https://www.themoscowtimes.com/2016/08/29/uzbekistan-on-life-support-country-motionless-as-karimov-hospitalized-a55147>(검색일: 2019. 7. 24).
- MacFarquhar, Neil. 2016. "With Uzbekistan's Ruler Gravely Ill, Questions Arise on Succession." [https://www.nytimes.com/2016/08/30/world/asia/uzbekistan-president-islam-karimov.html?\\_r=0](https://www.nytimes.com/2016/08/30/world/asia/uzbekistan-president-islam-karimov.html?_r=0)(검색일: 2019. 7. 24).
- Pikulicka-Wilczewska, Agnieszka. 2018. "On the reform path: Uzbekistan opens up after years of isolation."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reform-path-uzbekistan-opens-years-isolation-181014092246543.html>(검색일: 2019. 7. 24).
- Qalampir. 2016. "Зокир Алматыв ҳукумат ишига қайтарилди." <http://archive.qalampir.uz/news/zokir-almatov-xukumat-ishiga-qaytarildi-5275>(검색일: 2019. 7. 24).
- Qishloq Ovozi. 2015. "Orphaned Dictator: The Making Of Uzbekistan's Islam Karimov." <https://www.rferl.org/a/the-making-of-islam-karimov-uzbekistan/26917396.html>(검색일: 2019. 7. 24).
- Qishloq Ovozi. 2017. "Rustam Azimov, Once Seen As Potential Uzbek President, Dismissed From Government." <https://www.rferl.org/a/qishloq-ovozi-azimov-out-uzbekistan-government/28531755.html>(검색일: 2019. 7. 24).
- Reuters. 2016. "Uzbekistan PM wins presidential vote panned by Western monito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zbekistan-election-idUSKBN13U1BH>(검색일: 2019. 7. 24).
- RFE/RL. 2016. "Uzbekistan Names Longtime PM Mirziyayev Interim President." <https://www.rferl.org/a/uzbekistan-interim-president-karimov/27974858.html>(검색일: 2019. 7. 24).
- Roth, Andrew. 2016. "uncertainly over President Islam Karimov's condition roils Uzbeki stan."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succession-looms-in-uzbekistan-amid-uncertainty-over-leaders-condition/2016/08/30/974d7e86-6e24-11e6-993f-73c693a89820\\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82d9fdf0baea](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succession-looms-in-uzbekistan-amid-uncertainty-over-leaders-condition/2016/08/30/974d7e86-6e24-11e6-993f-73c693a89820_story.html?noredirect=on&utm_term=.82d9fdf0baea)(검색일: 2019. 7. 24).
- Spot. 2018. "Опубликован список главных реформ президента Шавката Мирзиёева."

- <https://www.spot.uz/ru/2018/07/24/reforms/>(검색일: 2019. 7. 24).
- Sputnik. 2018. “Мирзиёев расказал, сколько чиновников уличили в коррупции в 2018 году.” <https://uz.sputniknews.ru/politics/20181208/10197101.html>(검색일: 2019. 7. 24).
- Stratfor. 2016. “In Uzbekistan, Hints of a Successor Emerge.”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uzbekistan-hints-successor-emerge>(검색일: 2019. 7. 24).
- Stratfor. 2017. “A Resistance to Reform in Uzbekistan.” <https://worldview.stratfor.com/article/resistance-reform-uzbekistan>(검색일: 2019. 7. 24).
-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uzbekistan/rating>(검색일: 2019. 7. 24).
- Washingtonpost. 2016. “When ailing dictators die in office, what happens next?”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6/12/01/when-ailing-dictators-die-in-office-what-happens-next/?utm\\_term=.6a994102243e](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6/12/01/when-ailing-dictators-die-in-office-what-happens-next/?utm_term=.6a994102243e)(검색일: 2019. 7. 24).
- Абдурашулов, Абдужалил. 2017. “Зачем узбекскому президенту либеральные реформы?”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41269455>(검색일: 2019. 7. 24).
- Бологов, Петров. 2017. “Останется только один. Почему возник раскол в руководстве Узбекистана.” <https://carnegie.ru/commentary/68260>(검색일: 2019. 7. 24).
- Ильхамов, Алишер. 2018.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тупик. О том, как реформировать хлопковый сектор Узбекистана.” <http://ced.uz/publitsistika/kommunisticheskij-tupik-o-tom-kak-reformirovat-hlopkovij-sektor-uzbekistana/>(검색일: 2019. 7. 24).
- МВФ. 2017. “Заявление по завершении рабочего визита миссии МВФ в Узбекистан.” <https://www.imf.org/ru/News/Articles/2017/07/24/pr17296-statement-at-the-conclusion-of-an-imf-staff-visit-to-uzbekistan>(검색일: 2019. 7. 24).
-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https://mfa.uz/ru/press/smi/17737/>(검색일: 2019. 7. 24).
-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й портал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6. “Медицинское заключение о болезни и причине смерти Ислама Абдуганиевича Каримова.” <https://www.gov.uz/ru/news/view/7168>(검색일: 2019. 7. 24).
- Прохватилова, Владимира. 2016. “Узбекистан: тайная война кланов.” <https://vprohvatilov.livejournal.com/305257.html>(검색일: 2019. 7. 24).
- Центр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http://strategy.gov.uz/en>(검색일: 2019. 7. 24).

## Abstract

## An Analysis on Mirziyoyev's Way to Strengthen His Power in Uzbekistan: Power-Sharing Theory of Authoritarianism

Dong Ki Sung Inha University

Islamic Karimov ruled Uzbekistan for 25 years. After Karimov's death on September 2, 2016, Mirziyoyev, Azimov and Inoyatov were mentioned as candidates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t that time, Azimov and Inoyatov were more likely to be elected to the presidency than Mirziyoyev. However, Azimov and Inoyatov endorsed Mirziyoyev and gave up running. Mirziyoyev, who was elected president, eventually removed Azimov and Inoyatov without any problems. Basically, this case rarely occurs in an authoritarian regime. In order to understand the above case, this study focuses on power-sharing theory of authoritarianism, which was proposed by Milan Svoblik. This study analyzes this case through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y did Azimov and Inoyatov endorse Mirziyoyev? When did Mirziyoyev fire Azimov and Inoyatov? Why did Azimov and Inoyatov accept Mirziyoyev's decision without resistance? What were the ways and characteristics that Mirziyoyev used to strengthen his power?

**Keywords** | Uzbekistan, Mirziyoyev, Inoyatov, Power-Sharing, Authoritarianism